

『헌법이 뭐길래? 책봇이 알려줄게!』

독서 활동지

학생용



1

차시

헌법, 세상의 규칙을 알려줘!

★ 질문하며 읽기

게임을 할 때 가장 먼저 정해야 하는 건 뭘까요?

바로 '규칙'이에요. 규칙이 없다면 누군가는 반칙을 하고, 누군가는 억울한 일을 겪게 될지도 몰라요. 그래서 우리는 게임을 공정하게 즐기기 위해 반드시 규칙을 정하죠.

그런데 우리가 사는 사회도 여러 사람이 함께 어울려 살아가는 곳이에요.

모두가 원하는 대로만 행동한다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내가 소중하게 생각하는 것을 누군가 빼앗아 간다면?

힘이 센 사람이 자기 마음대로 행동한다면?

그럴 때 우리에게 필요한 건 무엇일까요?

사회에서도 꼭 지켜야 할 규칙이 있어요. 그 수많은 규칙 중에서도 가장 기본이 되는, 가장 중요하고 꼭 알아야 할 규칙이 바로 헌법이에요.

헌법은 다른 법들과 어떤 관계가 있을까요?

그리고 헌법이 없다면 우리의 삶은 어떻게 달라질까요?

이제 아래 질문을 함께 생각해 보며 헌법의 역할을 살펴봐요.

- 헌법이 없으면 세상은 어떻게 될까요? (28p)

- 왜 헌법을 ‘가장 높은 법’이라고 부를까요? (19~22p)

★ 독서 토론

- 게임에도 규칙이 있듯, 세상에도 규칙이 필요하다고 생각하나요? 그 이유는 무엇인가요? (6~7p)

- ‘헌법은 모두를 위한 약속’이라는 말에 동의하나요? 사례를 들어 설명해 보세요. (41~42p)

★ 생각 정리하기

- 오늘 읽은 내용을 바탕으로 ‘내가 생각하는 헌법이란?’ 문장으로 정리해 보세요.

기본권은 왜 중요할까요?

★ 질문하며 읽기

친구가 이런 말을 한다면 어떨까요?

“넌 여자니까 이 일은 하기 어려울 거야.”

“우리랑 다르게 생겼으니까 같이 놀지 마.”

“지금부터 넌 말도 하면 안 돼.”

이런 말을 들으면 가슴이 턱 막히고 화가 나겠죠. 말도 안 되는 이유로 누군가가 나를 차별하고, 무시하고, 내 자유를 빼앗으려 한다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우리는 모두 누군가의 소중한 자식이고, 친구이며, 사회의 구성원이에요.

그런데 사회 속에서 누군가가 약자라는 이유로, 가난하다는 이유로, 혹은 다르다는 이유만으로 부당하게 대우받는다면 그걸 막아 줄 든든한 힘은 어디에서 올까요?

우리가 태어났다는 이유만으로 가지는 당연한 권리가 있어요. 누구에게 허락을 받지 않아도, 어디에 살든 간에 사람이라면 누구나 갖고 있는 권리예요.

이 권리를 지키기 위해 나라에서는 특별한 약속을 만들었어요. 바로 헌법이에요. 그중에서도 가장 소중한 약속이 바로 ‘기본권’이라는 것이죠. 기본권은 우리를 자유롭게 말하게 해주고, 원하는 것을 선택하게 해줘요. 위험하거나 부당한 대우를 받지 않도록 도와주고, 필요할 때는 도움을 요청할 수 있는 힘이 되기도 해요.

하지만 모든 사람이 이 권리를 똑같이 누리고 있을까요? 혹시 누군가는 당연히 누려야 할 권리를 모르고 살아가고 있지는 않을까요?

어쩌면 누군가는 이런 생각도 할 수 있어요.

“정말 아무도 내 삶에 간섭하지 않을 수 있을까?”

“공부할 기회를 갖는 것도 권리일까, 그냥 운일까?”

“내가 힘들 때 국가가 도와줘야 한다고 말할 수 있을까?”

이제 우리는 이런 권리들을 하나씩 살펴보려고 해요. 기본권은 너무나 당연해서 자주 잊고 살지만, 사실 우리 삶의 모든 순간을 지켜주는 보이지 않는 안전띠와도 같답니다.

그렇다면 다음 질문을 함께 생각해 볼까요?

- 우리가 태어날 때부터 가지는 권리는 무엇일까요? (45~46p)

- 자유권과 사회권은 어떻게 다를까요?(59~63p, 71~74p)

★ 독서 토론

- '기본권도 제한될 수 있다'는 말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나요? (75~79p)

- 차별을 막기 위한 헌법 조항이 실제 생활에 어떤 영향을 줄 수 있을까요? (53~58p)

★ 생각 정리하기

- 내가 생각하는 가장 소중한 권리是什么, 그리고 그 이유는 무엇인지 써 보세요.

국회, 대통령, 법원은 무슨 일을 할까요?

★ 질문하며 읽기

한 반에 반장 한 명만 있고, 나머지 친구들은 아무 말도 못 한다면 어떤 일이 생길까요? 반장

이 숙제를 정하고, 급식 메뉴도 혼자 고르고, 운동장을 쓸 반도 마음대로 정한다고 해 봐요.

처음엔 편할지도 몰라요. “결정 빨라서 좋네!” 하고 말이죠.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친구들이 말할 기회를 잃고, 점점 불만이 쌓일지도 몰라요.

“왜 항상 반장이 하고 싶은 대로야?”

“나도 의견이 있는데 말할 수가 없어.”

이런 생각들이 쌓이면 결국 친구들 사이에도 갈등이 생기겠죠.

사실 나라에서도 이런 일이 일어날 수 있어요. 누군가가 모든 결정을 혼자 내리고, 다른 사람들의 의견은 무시한다면요. 그건 과연 좋은 나라일까요?

우리가 사는 나라에는 대통령, 국회, 법원이라는 기관이 있어요.

이 세 기관은 마치 ‘세 친구’처럼 서로 다른 일을 맡고 있지만, 한 친구가 너무 많은 힘을 가지지 않도록 서로를 견제하고 균형을 맞추는 역할도 해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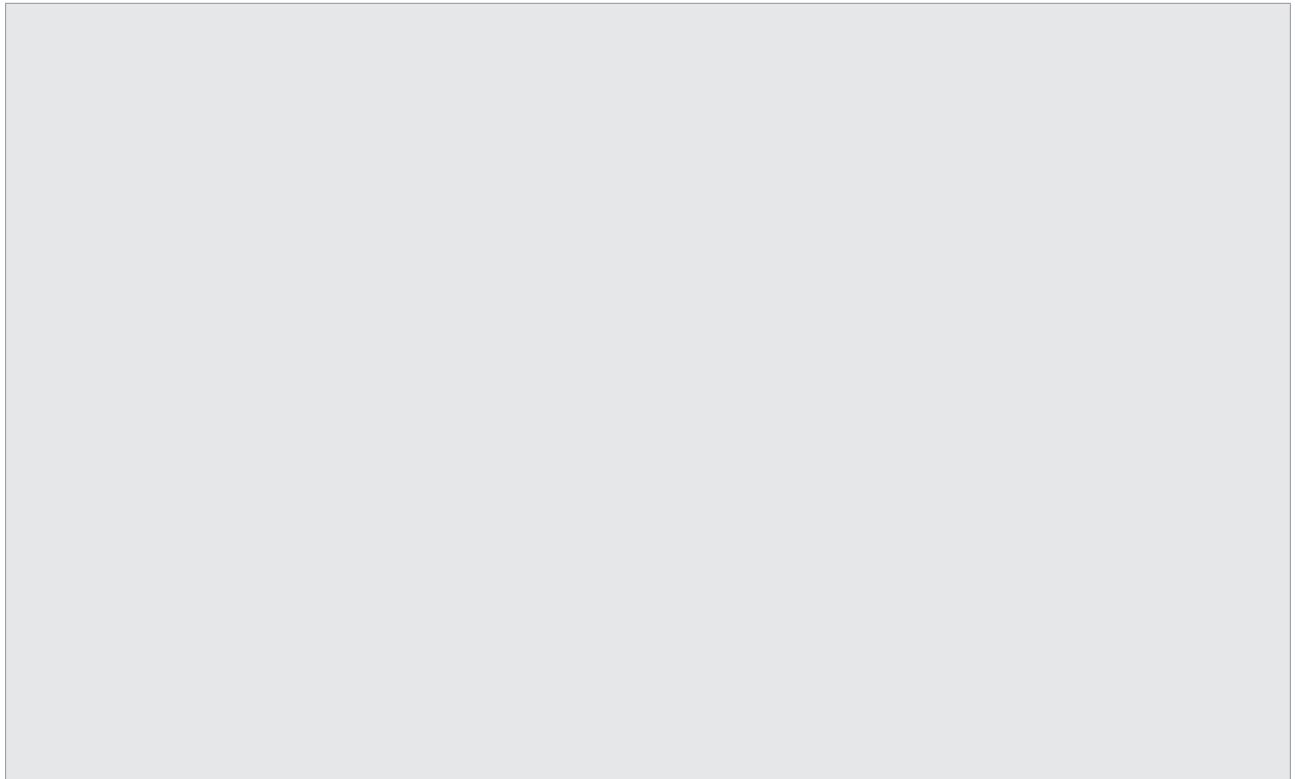
생각해 볼까요? 대통령이 혼자 법을 만들고, 판결까지 내릴 수 있다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국회의원이 법을 만들면서, 자기에게 유리하게 법을 바꾸려 한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판사가 마음대로 판단을 내리는데 누구도 제지하지 못한다면, 우리는 어디에 도움을 요청해야 할까요?

우리는 이미 역사 속에서 권력이 한 사람에게 집중되었을 때 어떤 일이 벌어지는지 많이 배웠어요. 그래서 민주주의 나라에서는 권력을 나누는 일이 아주 중요해졌어요. 누구도 모든 걸 마음대로 하지 못하도록, 서로를 지켜보면서 동시에 협력하는 관계가 필요해진 거예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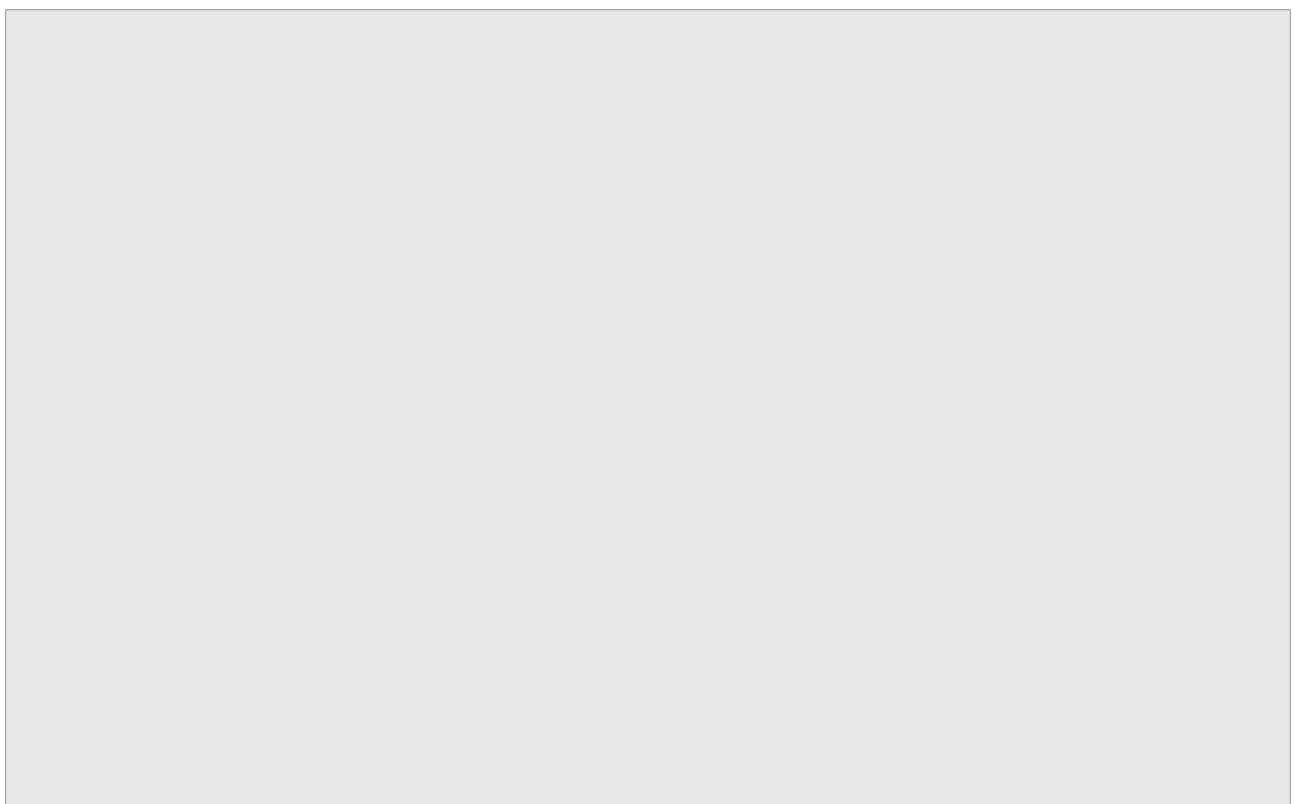
이제 우리는 이 세 친구가 어떤 역할을 하고, 어떻게 함께 나라를 움직이고 있는지 살펴보려고 해요. 정말 신기하게도, 이 세 기관은 따로 움직이지만, 하나의 팀처럼 작동해야 나라가 제대로 굴러간답니다.

그렇다면 이런 질문이 생기겠죠?

- 삼권분립은 왜 필요할까요? (86~90p)



- 헌법기관들은 어떤 역할을 하고 있을까요? (91~95p, 100~104p, 109~113p)



★ 독서 토론

- 대통령이 잘못된 결정을 하면 누가 막을 수 있을까요? (105~108p)

- 법원이 헌법을 기준으로 재판하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109~113p)

★ 생각 정리하기

- 가장 인상 깊었던 헌법기관과 그 이유를 정리해 보세요.

일상 속에서 헌법이 작동한다면요?

★ 질문하며 읽기

친구가 SNS에 쓴 글을 보고 깜짝 놀란 적 있나요? 누군가를 놀리거나, 혐오하는 표현이 담겨 있다면 그 글은 단순한 '의견'이라고만 말하기 어려워요. 때로는 상처가 되고, 법적인 문제가 되기도 해요. 반대로, 어떤 사람이 자기 생각을 솔직하게 말했는데, 그걸 이유로 불이익을 받는다면 어떨까요? "이건 내 자유야!"라고 말하고 싶을 거예요.

'표현의 자유'는 우리가 마음껏 말하고, 글을 쓰고, 영상을 만들고, 퍼뜨릴 수 있는 소중한 권리예요. 그런데 이 자유는 언제나 '무제한'일 수 있을까요? 누군가를 심하게 비난하거나 거짓 정보를 퍼뜨리면, 그 자유는 다른 사람의 권리를 침해할 수도 있어요. 그래서 자유에는 언제나 책임이 따라요.

이럴 때 우리가 의지할 수 있는 기준이 바로 헌법이에요. 법률보다 더 높은 기준으로, 서로의 권리와 자유가 부딪힐 때 어떤 가치를 먼저 지켜야 할지 헌법이 알려줘요.

한번 생각해 봐요. 친구가 학교에서 따돌림을 당했는데, 누군가가 그 상황을 영상으로 찍어 인터넷에 올렸다면요? "나는 사실을 알린 것뿐이야."라고 주장할 수도 있겠죠. 하지만 피해를 당한 친구는 그 영상이 공개된 것만으로도 또 다른 고통을 겪을 수 있어요. 그럴 땐 궁금해지죠. 이건 과연 표현의 자유일까요, 아니면 누군가의 사생활을 침해한 걸까요? 요즘은 온라인 공간에서도 나의 권리가 존중받고, 동시에 다른 사람의 권리도 지켜주는 게 중요해졌어요. 우리가 올리는 한 마디, 한 줄의 글도 누군가의 권리와 연결될 수 있어요. 그만큼 신중해야 하고, 나의 권리와 남의 권리를 어떻게 균형 있게 지킬 수 있을지를 고민해야 해요.

그럼 이제 질문해 볼게요.

- 헌법은 나의 일상과 어떤 관계가 있을까요?

- 온라인 표현의 자유도 헌법이 보장할까요? (128~132p)

★ 독서 토론

- 댓글 하나에도 헌법이 관련될 수 있다는 점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나요? (153~156p)

- 학교에서도 헌법이 내 권리를 지켜줄 수 있을까요? (133~136p)

★ 생각 정리하기

- 내가 겪었던 일 중 헌법과 관련 있다고 느꼈던 경험을 떠올려 적어 보세요.

헌법, 우리 손으로 바꿀 수 있을까요?

★ 질문하며 읽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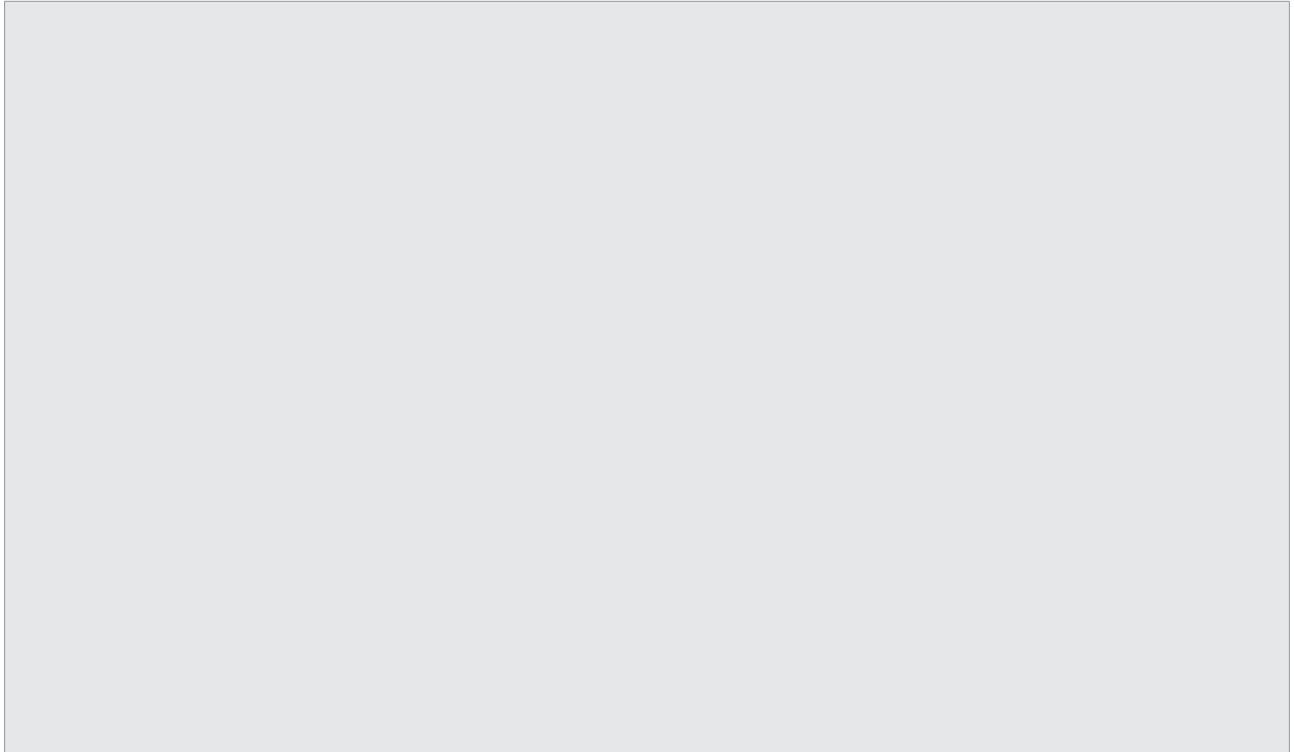
'헌법'이라고 하면 뭔가 단단하고 고정된 느낌이 들지 않나요? 바꿔지 않을 것 같고, 내가 손댈 수 없는 커다란 규칙처럼 느껴지기도 해요. 하지만 헌법도 시대에 따라 바뀔 수 있고, 실제로 많은 변화가 있었어요. 예전에는 여성에게 투표권이 없었고, 청소년의 목소리는 정치에서 거의 들리지 않았어요. '정치는 어른들만의 일'이라는 생각이 너무도 당연하게 여겨지던 시절이 있었죠. 하지만 그 당연함에 "왜요?"라고 묻는 사람들이 있었어요. 그들의 목소리는 때론 외면받고, 때론 저항받았지만 결국 세상을 바꾸었고, 헌법도 함께 바뀌었어요.

지금 우리가 누리는 권리들은 누군가의 치열한 목소리와 용기에서 비롯된 것이에요. 그렇다면 지금 우리가 느끼는 불편함이나 부당함, 혹은 '이건 좀 이상하지 않아?' 하는 의문들은 헌법과 무관할까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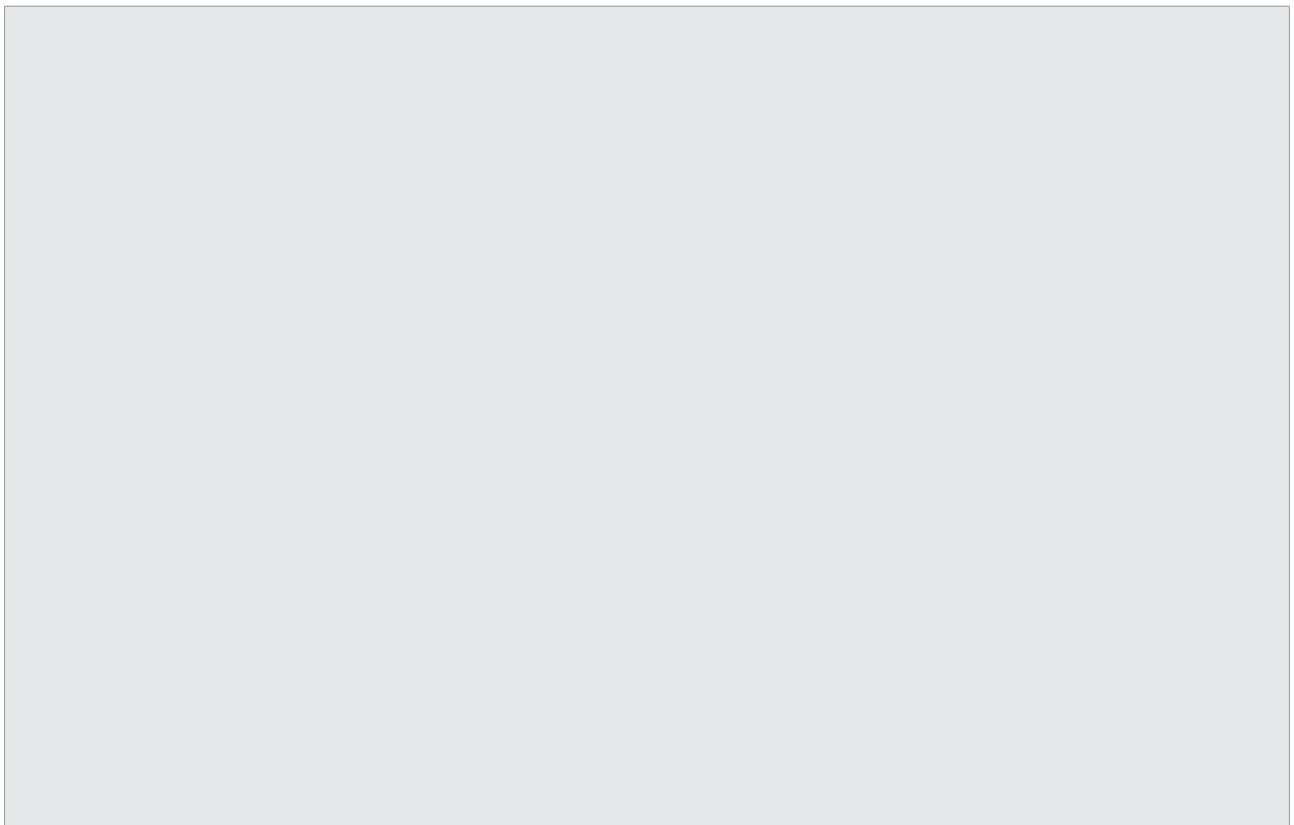
혹시 지금의 헌법은 우리의 일상과 마음을 충분히 담아내고 있을까요? 만약 담아내지 못한다면, 우리는 헌법을 바꿀 수 있을까요?

이제 질문해 볼게요.

- 헌법으로도 해결되지 않는 문제가 있을까요? (166~169p)



- 청소년의 목소리가 헌법에 담길 수 있을까요? (178~182p)



★ 독서 토론

- 민주적 헌법이 없다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170~173p)

- 헌법은 완벽할 수 있을까요? (174~177p)

★ 생각 정리하기

- ‘내가 바꾸고 싶은 헌법 조항’이 있다면 어떤 내용일지 적어 보세요.

- ‘헌법은 나에게 ○○○이다.’라는 완성하고 왜 그렇게 생각했는지 적어 보세요.